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 Weapons of Mass Happiness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러 가지 것들에 굶신거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도 같이 했었다. 하지만 폭력은 폭력을 나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한 싸움을 보면 역시 핵을 핵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주로 핵보유국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을 압박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들도 결국은 광기의 한 집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슬프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강력한 물리적인 힘과 광기가 팽배하는 지금, 우리 역시 강력한 무기를 가졌으면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물리적으로 아무도 해하지 않는 무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1. 핵탄두 대신 사람들의 아름다운 순간, 아름다운 말, 그리고 염원을 담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만들어 탑재한다.
2. 이 장치는 방수가 되며 높은 압력과 충격에 견디며 웬만한 방사능 유출에도 견딜 수 있다.
3. 핵폭발로 반경 수십 km를 초토화 시키는 대신, 각종 무선 통신으로 인터넷, 햄 통신망에 메시지를 세계적으로 전달한다.

이 세상 어는 것보다 파괴되기 힘든 장치에 아름다운 순간과 올바른 목소리를 담아 씌 없이 세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관람포인트

위에서 설명한대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억원이 소요될지 모른다. 물론 실제 핵무기를 만드는 비용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행복무기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정말 파괴하기 힘들다면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의 작업과 비교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지금의 작업은 이상적인 행복무기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다.

관객들은 무기의 질감을 지니고 무기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하지만 따듯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형태를 보며 실제로 그러한 무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투영하리라 본다.

국가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은 뜻있는 국민이고
주먹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웃음이라고 생각한다.

핵무기를 핵으로 대항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평화와 사랑의 바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가?

그래서 실제로 구동하는 행복무기를 만들필요가 있다.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추가글- 대량 행복 무기 VS 대량 살상 무기

미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결국에는 찾지 못했다. 그때마다 영자신문에는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가 지면을 장식하였다. 이에 작품의 영어 이름을 이에 대응되는 대량 행복 무기 (Weapons of Mass Happiness)로 명명하였다.
대량행복무기 200기를 보유해도 강대국이 중재하려 할까??